

2026. 1. 28.(수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6년 1월 27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동행·매력  
특별시서울

SEOUL  
M! SOUL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정원도시국 조경과

조경과장

온수진

02-2133-2101

조경시설팀장

정지윤

02-2133-2115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

쪽수: 6쪽

관련 누리집

festival.seoul.go.kr/garden

## 서울숲에서 한양대역~건대입구역 잇는 초록띠 선형정원 3만<sup>m</sup>2 조성

- 서울시, '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' 개최 서울숲에서 총 10km '선형정원 네트워크' 구축
- 선형정원, 거점정원, 골목정원... 도심 구석구석 볼거리·즐길거리로 박람회 붐업
- 박람회 공간 시내까지 확장, 시민 발길 끌어 지역 활력... 4월 말까지 조성 마무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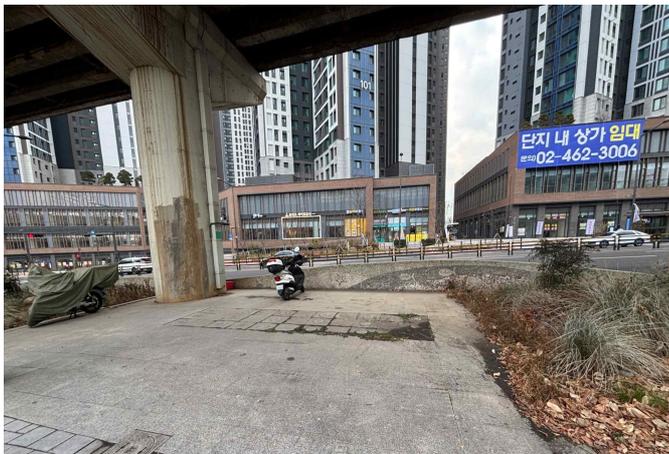
서울시가 오는 5월 열릴 역대 최대·최장규모 '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'에 앞서 행사가 진행될 서울숲에서 한양대역~성수역~건대입구역을 잇는 총 10km, 3만<sup>m</sup>2의 '선형정원 네트워크'를 조성한다. 도심 곳곳에 초록길과 녹색정원을 조성해 박람회 공간을 시내까지 확장하고 시민들의 발길을 끌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다.

선형정원 네트워크는 주요 간선도로인 왕십리로, 아차산로, 능동로 등 주요노선 6.5km 구간과 '감성과 트렌드'가 공존하는 성수동 연무장길 등 주요 골목길 3.5km 구간을 포함해 주요 간선도로와 골목길을 접한 성수동과 자양동 일대 공원 및 광장, 자투리 공간 등 3만<sup>m</sup>2이다.

- 시는 경관을 개선을 넘어 정원을 따라 시민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‘선형정원’, ‘거점정원’, ‘골목정원’ 등 3대 조성 전략을 추진한다. 박람회 개최 전인 4월 말까지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.

**<회색빛 고가하부 도로를 화사한 선형정원으로>**

- 우선, 그간 방치됐던 지하철 2호선 고가 하부(왕십리로와 아차산로, 능동로 등 6.5km 구간)에 선형정원 모델을 구축하여 새로운 가로정원을 선보일 예정이다.
  - (모듈형 정원)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출입구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이동과 조합이 자유로운 ‘모듈형 정원’을 배치해 박람회 이후에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.



<왕십리로 고가하부>



< 조성 이미지 : 모듈형 정원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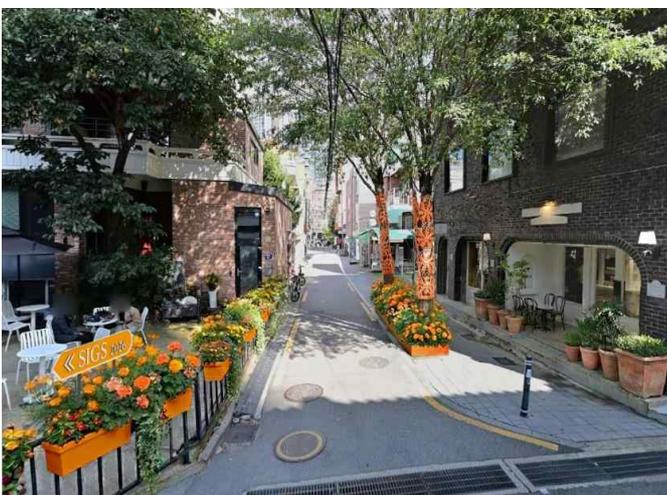
- (한뼌정원·신규녹지) 보도 폭이 좁거나 가로수 뿌리가 노출된 삭막한 공간에는 10cm 높이의 경계 플랜터를 설치해 ‘한뼌정원’을 만들고, 유휴 공간을 찾아내 떠녹지를 대폭 확충한다.
- (고가 하부) 지상철 구간인 지하철 2호선(뚝섬역~성수역) 하부의 거대한 콘크리트 교각에는 2026년 서울색 모닝옐로우와 그래픽을 입히는 ‘교각 랩핑·페인팅’을 도입하고, 성동교와 응봉교 등 교량 난간에는 440여 개의 ‘걸이형 화분’을 설치해 공중에서도 꽃을 즐길 수 있게 한다.

## 〈소규모 공원·녹지와 민간건물 유희부지를 거점정원으로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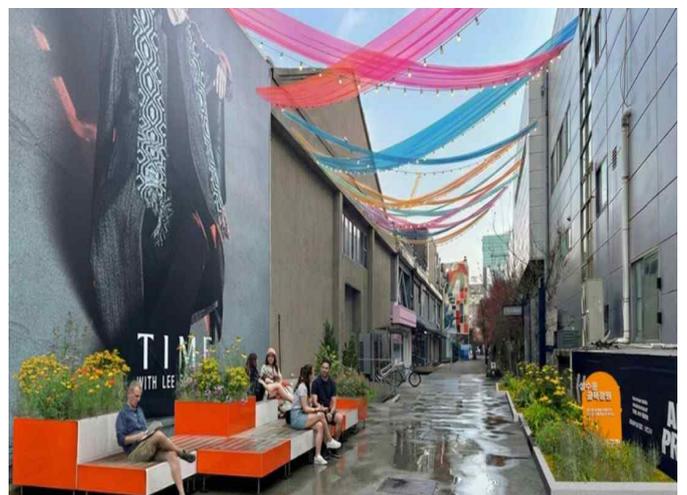
- 선형정원을 따라 성수동과 자양동 일대 공원과 광장, 녹지대, 자투리 공간 등 12곳은 '거점정원'으로 조성되어 흩어진 도심 녹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한다.
  - 성수동 구두테마공원, 자양동 능동로 분수광장 등은 매력정원 조성과 함께 서울시 브랜드(Seoul my soul) 및 정책(5분 정원도시 서울) 문자 조형물을 함께 조성해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선보인다.
  - 또한, 민간 건물인 서울숲M타워 등의 공개공지도 건축주와 협의해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.

## 〈연무장길, 아뜰리에길 등 핫플레이스를 잇는 골목정원으로〉

- MZ세대의 성지로 불리는 성수동 일대 연무장길, 아뜰리에길, 수제화 거리 등 9개 골목이 성수동의 힙한 감성과 정원이 만나 3.5km의 '골목정원'으로 탈바꿈하여 성수동을 찾는 내·외국인들을 박람회장으로 유도한다.
  - 골목 곳곳에는 서울색 모닝엘로우를 적용한 플랜테리어와 정원소품을 배치해 화사하게 연출하고, 골목별 특성을 반영해 길이형 화분과 화단을 조성함으로써 눈길 닿는 공간마다 다채로운 경관을 선보인다.



〈아뜰리에길 조성 이미지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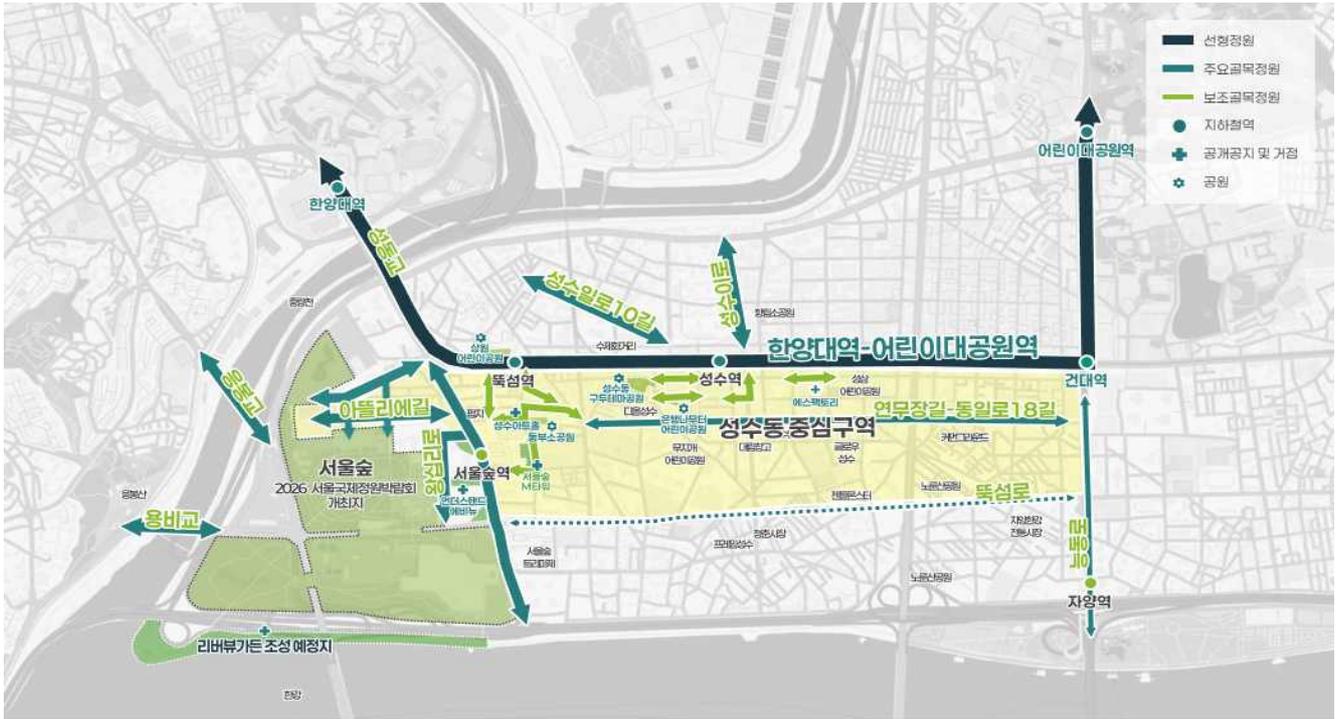


〈연무장길 조성 이미지〉

- 특히, 골목 상인들과의 녹화협약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, 소상공인 대상 꽃 나눔을 진행하는 등 정원을 매개로 한 상생형 지역 축제 모델을 구현한다.
  
- 서울시는 이번 선형정원 네트워크 구축으로,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방문한 내·외국인 관람객들이 성수동과 자양동의 골목 구석구석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  
-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“시민들이 매일 걷는 거리가 정원이 되고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, 박람회의 감동을 도심 곳곳으로 이어주는 선형 정원 네트워크를 완성도 있게 조성하겠다”고 말했다.

- 붙임 1. 선형정원 네트워크 위치도 및 TOOL-KITS  
2. 관련 Q&A. 끝.

□ 위치도



<선형정원 네트워크 위치도>

□ 선형정원 네트워크 TOOL-KITS



<한뼘정원>



<신규녹지대 조성>



<기존 녹지대 식재개선>



<모듈형 정원 조성>



<난간걸이 화분>



<모듈형정원 및 교각페인팅>



<모듈형정원 및 교각 랩핑>



<국정박 사이너지>



<문자조형물>

**|Q1| 선형정원 네트워크의 목적은 무엇이며, 어디에 조성되나요?**

- ◆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생동감을 서울숲 너머 도심 곳곳으로 확산하여,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원 문화를 체감함과 동시에 정원을 매개로 한 관람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◆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의 주요 간선도로와 성수동 연무장길 등 골목길을 포함해 총 10km 구간에 조성됩니다.

**|Q2| 공간이 좁거나 형태가 불규칙한 도심 도로변에 어떻게 정원을 만드나요?**

- ◆ 장소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‘모듈형 디자인’을 도입합니다. 정형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이동형 화분과 조립식 정원을 배치해 좁은 자투리 공간에도 맞춤형 설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.
- ◆ 아울러, 단순히 보기만 하는 녹지가 아니라, 벤치나 퍼걸러 같은 시설물과 결합한 ‘정원형 스트리트 퍼니처’를 설치해 시민들이 걷다 쉴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활용합니다.

**|Q3|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골목정원은 계속 유지되나요?**

- ◆ 일회성 축제로 끝나지 않도록 지역 주민, 상인들과 ‘관리협약’을 체결합니다. 특히 ‘마을정원사’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본인 집 앞이나 상가 앞 정원을 가꾸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, 시민의 일상속에 정원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관리할 예정 입니다.

**|Q4| 거점정원과 골목정원은 어디에 조성되나요?**

- ◆ 거점정원은 총 12개의 장소에 조성되며, 위치는 ‘성수동 구두테마공원, 동부소공원, 은행나무터어린이공원, 상원어린이공원, 언더스탠드에비뉴, 서울숲역 5번출구 광장, 트리마제 소공원, 성수1가2동주민센터, 현대골든타운 앞 유희공지, 서울숲입구교차로 녹지대, 뚝섬역, 서울숲M타워’입니다.
- ◆ 골목정원은 중심골목 1.6km(연무장길, 아뜰리에길, 성수이로)과, 보조동선 2km(성수일로10길, 아차산로7길 등 6개 노선)에 조성됩니다.